

양아치

2017. 9. 8 - 11. 22

When Two Galaxies Merge,

Yangachi





양아치는 뉴 미디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미디어의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10 헤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이기도 한 양아치는 전시뿐 아니라 음악, 무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조형 언어를 활발히 실험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Yangachi is keen on work to develop a new media language which can connect people and help them communicate by starting from an experiment to explore possibilities of new media. As the winner of the 2010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he has passionately experimented with his visual language through not only exhibitions, but also performances which are based on collaboration with specialis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music, dance and architecture.



When Two Galaxies Merge,  
Installation view

## 예술, 그 격렬하고도 예기치 못한 사건

녹색 카펫과 커튼으로 뒤덮인 전시장은 작가 양아치가 제안한 하나의 무대이다. 이 무대에서는 실 새 없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다. 전시장을 둘러본 관람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전시장에 배치되어 있는 오브제들이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모니터들, 영상과는 별개로 다양한 종류의 소리들이 흘러나오는 스피커들, 투명한 구슬들을 줄줄이 꿰어 장식한 심벌즈와 전자 키보드들이 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상들리에와 새장들이 매달려 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여윌수록 주위를 둘러본다면, 녹색 카펫 위에서, 키보드나 스피커 위에서, 새장 속에서 이런저런 오브제들이, 황금 덩어리들이, 박제된 동물들이 어떤 질서—어쩌면 혼돈—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장에 놓여 있는 오브제들이 자체적으로 발하는 빛과 군데군데 추가된 조명에 의지해 어둠 속에서, 안내심을 가지고, 처음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서로 다른, 다양한 오브제들을 발견해가던 관람객들은 천장에 매달린 새장에서 문득 어떤 움직임을 감지한다. 새, 멈춰 있는 오브제들로 구축된 질서에 개입한 움직임은, 살아 있는 요소이다. 자의(自意)를 지닌—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존재와 더불어 프로그래밍된 또다른 변수(變數)가 등장한다. 소리,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흐르다가 난데없이 중국어—실제로는 광둥어(廣東語)—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신경을 자극하는 잡음에 가까운 전자음이 간헐적으로 전시장에 피친다. 그렇게, 관람객들은 작가가 전시장에 배치해 놓은 항수(恒數)들과 변수들이 무작위로 조우하는 서로 다른, 자신만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시간—무대—을 만난다.

양아치의 전시 *When Two Galaxies Merge*는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만나, 혹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만나는 순간에 관한 것이다.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만나는 순간, 혹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만나는 이 순간을 양아치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불확실한 징조’에 비유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에 빠진 순간들, 바로 이 순간이 두 개의 세계—은하—가 뒤섞이는 순간이다. 친절하게, 작가는 자신의 전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When Two Galaxies Merge*, 그것은 어떤 무대, 그것은 전미래<sup>1</sup>가 가득한 무대, 그것은 대륙이동설처럼, 5G, 불면증, 서울, 최면, 사랑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작가의 언급대로라면, 관람객이 마주하는 전시장은 미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의 전제, 혹은 징후일 뿐이다. 전통적으로 작가들이 실현해 놓은 예술로서의 온전한 대상을 마주해온 관람객들에게 명명백백한 결과물이 아닌 불확실한 징조로서의 전시는 난감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면, 관람객은 이 불확실한 징조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만의 개별적인 결과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작가가 눈앞에 실현해 놓은 예술로서의 대상이 아닌, 개개인의 머릿속에 개별적이고 내밀하게 띄운 스크린에 투영되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예술을 말이다. 이러한 시도는 시지각(視知覺)에 기반한 현대미술로부터 벗어나 다른 감각에 기반한 미술의 언어를 개발하려는 양아치의 오랜

1. ‘전미래’는 불어에 존재하는 시제(時制)로, 미래에 행해져야 할 일에 대하여 그 이전에 행해진 일을 가리킨다.

## Art, the Violent Onslaught

The exhibition space covered with a green carpet and a green curtain is a scene suggested by artist Yangachi. On the stage occurs one event after another. And yet, these events are not easily fathomable. What the viewers looking around the gallery notice at a glimpse are the objects arranged there: monitors with a video being played, speakers playing various types of sounds regardless of the video clips, cymbals decorated with a chain of transparent beads and electronic keyboards are placed along with chandeliers and bird cages dangling in between. A wider look around with bigger eyes would show miscellaneous objects, golden chunks and stuffed animals on the green carpet, on the keyboards and the speakers, and in the bird cages are placed in some kind of order—or chaos.

The viewers getting to discover heterogeneous and diverse objects, which they could not recognize at first, with patience, in the darkness, resorting to spotlights added here and there as well as the naturally emitted light from the objects in the gallery happen to sense some movement in the bird cages dangling on the ceiling. Birds—moving and living elements which have intervened in the order established with immobile objects. Along with the beings with—artificially uncontrollable—autonomous will, another variable which has been programmed emerges. Sounds—there come in romantic melodies followed by Cantonese-speaking sounds, and noise-like electronic sounds stimulating nerves abruptly are intermittently resonated through the exhibition space. As such, the viewers confront their heterogeneous, their own exclusive and personal tempo-spatiality—a stage—where the number of terms and variables placed in the gallery have a random encounter with one another.

Yangachi’s exhibition *When Two Galaxies Merge* is about a moment when things that cannot encounter do end up encounter with one another, or things that cannot inevitably encounter do so. Yangachi compares this moment when the un-encounterable encounter or the inevitably encounterable do so to a “moment when love begins,” and an “uncertain signal” on an event which might happen in the future. These moments when things cannot be predicted and moments when everything is in a state of chaos—these are the moments when two worlds—galaxies—are mixed up. The artist kindly explains his exhibition as follows:

“*When Two Galaxies Merge*—it will be a stage, a stage replete with *futur antérieur*<sup>1</sup> that is a stage for the Continental Drift Club, 5G, insomnia, Seoul, hypnosis and love.”

According to his statement, the exhibition space encountered by the viewers is nothing more than an assumption or a signal of an event which might become the future. If an exhibition is an uncertain signal instead of a clear outcome to viewers who have traditionally encountered the object integrity as art which has been realized by artists, it is a bewildering, uncomfortable and unpleasant experience. And yet, if the viewers can be free from a custom which oppresses them, they might be able to experience their own individual outcome through the “contact” with the uncertain signal. It is the individual and personal art projected on

1. The *futur antérieur* corresponds to the future perfect in English. It indicates a supposition that an action will have been completed by the time of speaking, or by a specified point in the future. (<https://francais.lingolia.com/en/grammar/tenses/le-futur-anterieur>)





갤럭시, 사랑, 8Hz Galaxy, Love, 8Hz  
2017, Mixed media, 80 × 60 × 75 cm



갤럭시, 불면증 Galaxy, Insomnia  
2017, Mixed media, 120 × 125 × 54 cm



갤럭시, 사랑 Galaxy, Love  
2017, Mixed media, 55 × 61 × 93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00 × 56 × 188 cm



갤럭시, C-A-G-E-D Galaxy, C-A-G-E-D  
2017, Mixed media, 211 × 124 × 122 cm





When Two Galaxies Merge,  
Installation view

노력과 맞닿아 있다.

양아치는 2000년대 초부터 미디어 아트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던 작가이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이슈들을 상품화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했던 양아치 조합(2002)과 전자감시, 혹은 정보감시와 같은 국가적 감시 메커니즘에 대해 비판했던 전자정부(2003)와 같은 그의 초기 작업들은 한국 미술계에서 넷아트는 이름으로 시도되었던 중요한 초기 사례를 구성한다. 인터넷의 확산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기반으로 공고해진 디지털 환경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을 견지하던 양아치는 2008년과 2009년에는 미들 코리아: 양아치 에피소드 I, II, III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상상의 영토인 ‘미들 코리아’에서 펼쳐지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대안적 미디어 아트를 실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넷아트, 미디어 아트를 전면(前面)에 내세웠던 시기에도 그의 실제 관심사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나 웹이라는 도구보다는 네트워크로, 온라인 네트워크보다는 휴먼 네트워크로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점차 전기-전자가 배제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미디어로 옮겨졌고, 이것은 뼈와 살이 타는 밤(2014)이나 바다 소금 극장(2015)과 같은 설치작업을 통해, 그리고 남산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극장 삼아 시도되었던 리빙 필름 퍼포먼스 When Two Galaxies Merge(2016)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고 변주된다. 이 과정에서 양아치는 원근법과 시지각에 기반한 인식의 구조에 대한 촉각적/청각적 교란을 시도한다.

양아치에게 있어서 미디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며, 시각적이기보다는 촉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이다.<sup>2</sup> 소리를 통한 자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관람객들의 기억과 무의식을 관통하며 그들 각자의 머릿속에 자신만의 스크린을 띄우도록 유도한다. 소리를 통한 접촉은 이번 전시에서도 시도되고 있는데, 전시장을 채우고 있는 소리는 실제로는 세 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인간의 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소리,<sup>3</sup> 새의 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소리, 인간과 새의 청각으로 모두 감지할 수 있는 소리.<sup>4</sup> 결국, 새는 관람객—인간—의 제한적인 감각으로 구축된 질서에 급작스럽게 개입하는 변수이다. 관람객의 인식을 벗어난 곳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각성시키는 징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인식 가능한 것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공고한 질서가 보이지 않던 것과 들리지 않던 것의 징후로 혼란스러워지는 순간, 관람객은 더 큰 세상과 조우한다. 한번도 본 적 없고, 한번도 들어본 적 없던 새로운 세상과. 양아치의 전시 When Two Galaxies Merge는 이렇듯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근대가 구축해온 온전한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와 만날 것을 제안한다. 명명백백한, 투명한, 온전한, 그 무엇과도 접촉하지 않는, 그래서 안전하고 영원한 세상의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나 결코 반복되지 않을 유일한 한 순간을 온전히 만날 것을 제안한다. 바로 이러한 만남의 핵심에 양아치가 말하는 ‘전기-전자가 배제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미디어’와 ‘촉각적/청각적 지각에 기반한 인식’의 본질이 존재한다.

“만남은 전적으로 불투명한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며, 실제 세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통해서만 오로지 현실성을 갖게 될 뿐입니다.”<sup>5</sup>

- 사실상, 작가에게 있어 촉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은 다르지 않다. 청각적인 것은 소리의 파동이 고막과 접촉하는, 궁극적으로는 촉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아치의 작업에서 촉각에 기반한 미술의 언어는 주로 소리를 통해 시도된다.
- 인간의 청각이 일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대나 특정 취향 등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개인의 서로 다른 기억과 무의식을 자극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리가 촉발시키는 스크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개별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 물론,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인간의 청각으로도, 새의 청각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소리가 전시장에 존재할 수도 있겠다.
- 알렉 바디우, 사랑 예찬, 도서출판 길, 2013, 33.

the screen which has been individually and secretly generated in individuals' mind, instead of an object as art that has come into being before their eyes. Such an attempt is in line with Yangachi's longstanding efforts to develop a language of art based on other senses besides the contemporary art which is based on visual perception.

Yangachi is an artist who has been the talk of the town whenever media art was mentioned since the early 2000s. His early works—Yangachi Guild (2002) where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ssues were commercialized and sold online, and eGovernment (2003) which criticized the national monitoring mechanism as in e-monitoring or information monitoring—also form early examples of criticality which were attempted for in the name of “net art” in the Korean art scene. He has maintained a sharp-edged critical viewpoint, both online and offline, on the digital environment, which has been made more robust thanks to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ies. He presented Middle Corea: Yangachi Episode I, II, III in 2008 and 2009 in series, experimenting alternative media art through storytelling which unfolds in “Middle Corea,” an imaginary territory.

And yet, even when he put forth net art and media art in his works, his genuine interest lied in the network instead of media technologies or web, and in the human network instead of the online network. Such an interest of his was gradually transferred to media as communication where electricity-electronics was excluded, which has been experimented and modified in different ways through the following works: installation works including A Night of Burning Bone and Skin (2014) and Sea Salt Theater (2015); and When Two Galaxies Merge (2016), a living film performance which was tried in a sedan considered as a theater, which ran on roads around Namsan at a consistent speed. He attempts for tactile/auditory disruptions against the cognitive structure based on perspectives and visual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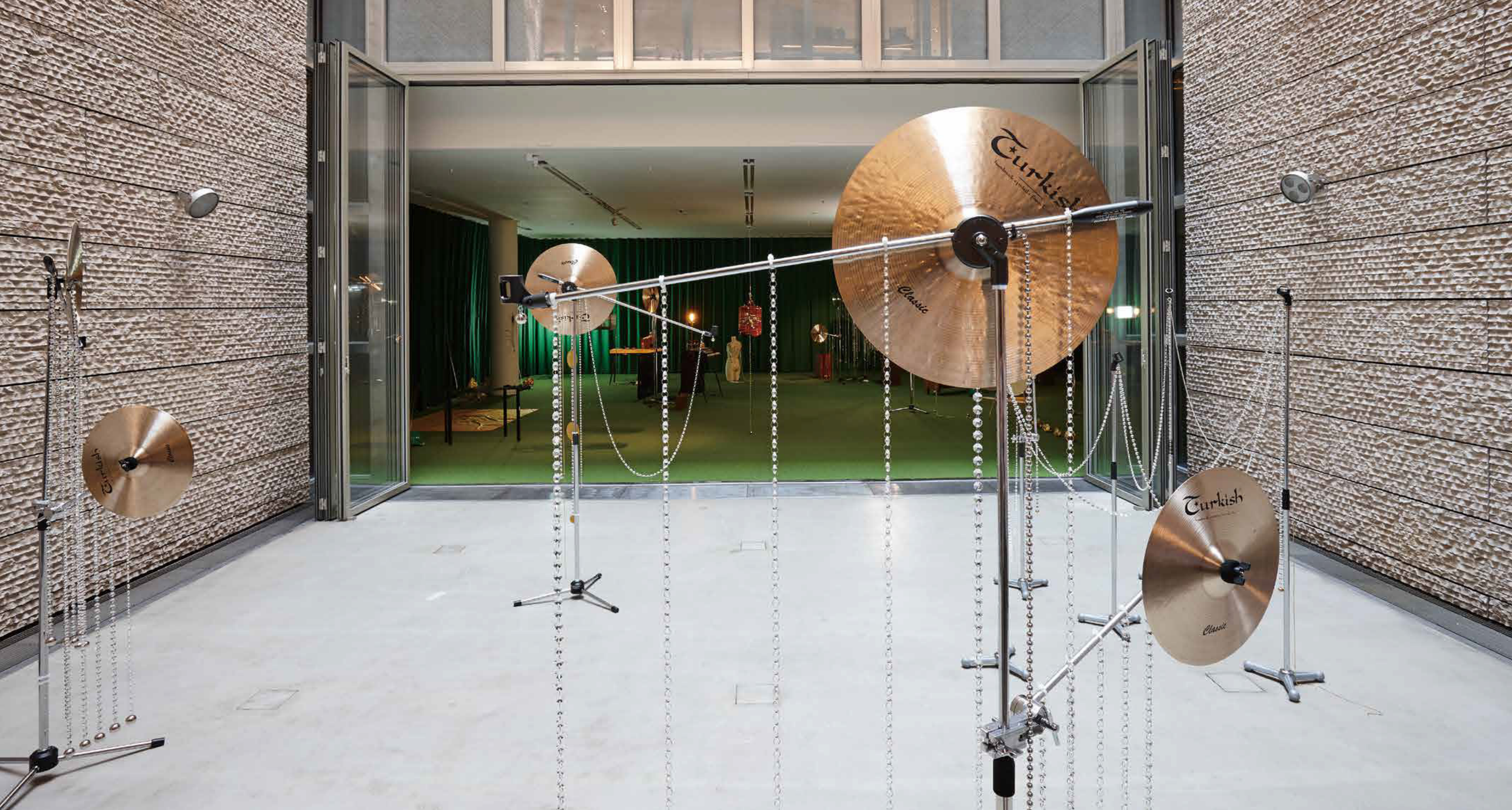
For him, media is a tool of communication basically connecting people to people, which is tactile and auditory instead of being visual.<sup>2</sup> Stimulation through sounds penetrates into the viewers' memories and subconscious-ness, going beyond time and space, and induce them to generate their own screen in their mind. Contact through sounds is tried in this exhibition again, and the sounds filling up the exhibition space are categorized into three layers: sounds which can be sensed through humans' auditory sense,<sup>3</sup> sounds which can be sensed through birds' auditory sense, and sounds which can be sensed by that of both humans and birds.<sup>4</sup> At the end of the day, a bird is a variable which abruptly intervenes in the order established through the limited sense of viewers—a signal which reminds one of the existence of another world which might exist beyond the viewers' perception.

At a point when the robust order established based on the visible and the audible—the perceivable—gets confused due to the invisible and the un-audible, the viewers encounter a bigger world, that is, an unseen and unheard of new world. Yangachi's exhibition When Two Galaxies Merge, as such, suggests encountering another which exists beyond the world of integrity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the modern era when people thought they knew all as they could see and hear all. It suggests a full encounter of the only moment in which everything is unclear and non-transparent, thus being uncomfortable and risky, and yet never repeatable, going beyond the boundary of a clear, transparent, integral, completely untouched and so safe and perennial. At the very core of such an encounter exists the essence of “cognition based on tactile/auditory perception” as well as “media as communication where electricity-electronics is excluded” dubbed by Yangachi.

“...it [an encounter] is an event that remains quite opaque and only finds reality in its multiple resonances within the real world.”<sup>5</sup>

- In fac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actile and the auditory to the artist because the auditory end up being tactile where the waves of sounds have a contact with the eardrums. As such, the language of art based on the tactile sense is attempted for through sounds in most cases of Yangachi's works.
- Even if a sound can be universally perceived by humans' auditory sense, different memories and subconscious-ness can be recalled to each individual depending on their age or taste, and might imbue different meanings to it. Therefore, even a screen triggered by the same sounds might end up being individual and personal.
- True, sounds which cannot be perceived through humans' auditory sense or that of birds—regardless of his intent—might exist in the exhibition space.
- Alain Badiou, In Praise of Love, Serpent's Tail, 2012, 24.





(from the left)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35 × 62 × 189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38 × 61 × 190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56 × 156 × 166 cm



그러나, 여전히, 양아치가 제안한 무대에 등장할 것인지 등장하지 않을 것 인지는 전적으로 관람객 자신에게 달려 있다. 또한, 작가가 제안한 무대에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난 후에 어떤 일 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만남은 불확실하고 우발적인 사건이고, 일 회적인 경험이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 듯이 말이다. 예술도 마찬가지이다. 그 격렬하고도 예기치 못한 사건, 그 무대에 당신은 등장할 것인가? 양아치가 던져 놓은 불안정한 문장의 제목 When Two Galaxies Merge, 전시로 던져 놓은 전제. 자, 당신은 이 불완 전한 문장을 완성할 것인가? 어떻게?

— 김윤경

And yet, still, it is entirely up to the viewers whether or not they would appear on the stage he suggested. Even if they appear on that stage, we do not know what would happen after two hetero- geneous worlds encounter with one another. An encounter is an uncertain and accidental event, a one-time experience. Some- times, taking risks is required. It is like our lives. The same applies to art. Would you appear in such a violent and unexpected event, or on such a stage? When Two Galaxies Merge, the title with an incomplete sentence thrown at by Yangachi, that is, an assump- tion he has put forth as the exhibition. So, would you complete this incomplete sentence? If so, how?

— Kim Yunkyoung



갤럭시, 스코어 Galaxy, Score  
2017, Mixed media, 68 × 102 × 6 cm



갤럭시, 사랑, not 8Hz Galaxy, Love, not 8Hz  
2017, Mixed media, 23 × 124 × 26 cm



갤럭시, 서울 Galaxy, Seoul  
2017, Mixed media, 60 × 60 × 142 cm



갤럭시, 5G, 스코어 Galaxy, 5G, Score  
2017, Mixed media, 113 × 15 × 29 cm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not 8Hz  
2017, Mixed media, 428 × 196 × 126 cm



(from the left)

갤럭시, 최면 Galaxy, Hypnosis  
2017, Mixed media, 23 × 23 × 4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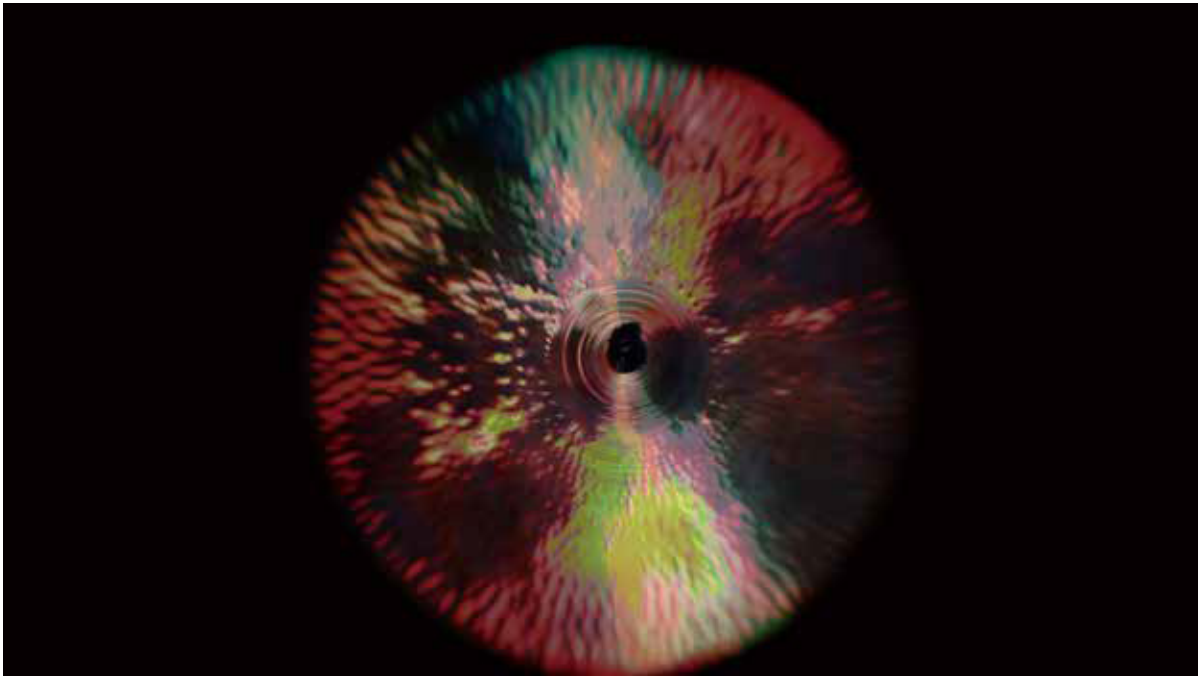
갤럭시, 최면 Galaxy, Hypnosis  
2017, Mixed media, 28 × 28 × 171 cm

갤럭시, 공작새 Galaxy, Peacock  
2017, Mixed media, 109 × 217 × 79 cm

갤럭시, 불면증 Galaxy, Insomnia  
2017, Mixed media, 62 × 98 × 151 cm

갤럭시, 스코어 Galaxy, Score  
2017, Mixed media, 200 × 144 cm





갤럭시, 조인철 Galaxy, Cho In-chul  
2017, Single-channel video, 9 minutes 8 seconds



갤럭시, 최옥노 Galaxy, Choi Wookno  
2017, Single-channel video, 9 minutes 30 seconds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스크린,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Screen, not 8Hz  
2017, Single-channel video, 13 minutes 8 seconds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스크린,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Screen, not 8Hz  
2017, Single-channel video, 20 minutes 19 seconds





When Two Galaxies Merge,  
Installation view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 프로그램, 현대 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머전” 프로그램,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토-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men and women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ndation operates nine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for photography, *Manufacto – the Skills Factory* and our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sup>3</sup>* is the Fo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z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Our *Biodiversity*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The Fo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연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수요일: 휴관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추석(10월 3일 & 4일): 휴관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to 7 PM  
Wednesday: Closed  
Thursday to Saturday: 11 AM to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to 7 PM

Chuseok (October 3 & 4): Closed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Exhibition Assistant: Hong Suhhee

Exhibition Curator & Editor: Kim Yunkyoung  
Text: Kim Yunkyoung  
Translator: Choi Kiwon (from Korean to English)  
Graphic Designer: Kang Gyeongtak (a-g-k.kr)  
Exhibition Photographer: Nam Kiyong

Review publish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entitled *When Two Galaxies Merge* by Yanggachi held at Atelier Hermès from 8 September to 22 November 2017.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Catherine Tsekenis  
Head of Editorial Image and Publications: Frédéric Hubin  
Head of Project: Clémence Fraysse





List of works

갤럭시, 서울 Galaxy, Seoul  
2017, Mixed media, 60 × 90 × 130 cm

갤럭시, 불면증 Galaxy, Insomnia  
2017, Mixed media, 120 × 125 × 54 cm

갤럭시, 스코어 Galaxy, Score  
2017, Mixed media, 78 × 16 × 49 cm

갤럭시, 사랑, 8Hz Galaxy, Love, 8Hz  
2017, Mixed media, 80 × 60 × 75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00 × 56 × 188 cm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not 8Hz  
2017, Mixed media, 428 × 196 × 126 cm

갤럭시, 스코어 Galaxy, Score  
2017, Mixed media, 200 × 144 cm

갤럭시, 공작새 Galaxy, Peacock  
2017, Mixed media, 98 × 100 × 189 cm

갤럭시, 불면증, 8Hz Galaxy, Insomnia, 8Hz  
2017, Mixed media, 150 × 126 × 217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33 × 84 × 164 cm

갤럭시, 스코어 Galaxy, Score  
2017, Mixed media, 68 × 102 × 6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05 × 55 × 187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80 × 145 × 174 cm

갤럭시, 스코어 Galaxy, Score  
2017, Mixed media, 200 × 144 cm

갤럭시, 해골 Galaxy, Skull  
2017, Mixed media, 30 × 30 × 164 cm

갤럭시, C-A-G-E-D Galaxy, C-A-G-E-D  
2017, Mixed media, 211 × 124 × 122 cm

갤럭시, 사랑, not 8Hz Galaxy, Love, not 8Hz  
2017, Mixed media, 23 × 124 × 26 cm

갤럭시, 서울 Galaxy, Seoul  
2017, Mixed media, 27 × 10 × 8.5 cm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not 8Hz  
2017, Mixed media, 111.8 × 28.4 × 127.5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20 × 59 × 189 cm

갤럭시, 서울 Galaxy, Seoul  
2017, Mixed media, 60 × 60 × 142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230 × 235 × 230 cm

갤럭시, 사랑 Galaxy, Love  
2017, Mixed media, 55 × 61 × 93 cm

갤럭시, 사랑 Galaxy, Love  
2017, Mixed media, 53 × 42 × 142 cm

갤럭시, 불면증, not 8Hz Galaxy, Insomnia, not 8Hz  
2017, Mixed media, 110 × 41 × 105 cm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not 8Hz  
2017, Mixed media, 284 × 146 × 192 cm

황금산 Gold Mountain  
2017, Mixed media, 30 × 21 × 30 cm

갤럭시, 5G, 스코어 Galaxy, 5G, Score  
2017, Mixed media, 113 × 15 × 29 cm

갤럭시, 스코어 Galaxy, Score  
2017, Mixed media, 200 × 144 cm

갤럭시, 최면 Galaxy, Hypnosis  
2017, Mixed media, 28 × 28 × 171 cm

갤럭시, 최면 Galaxy, Hypnosis  
2017, Mixed media, 23 × 23 × 41 cm

갤럭시, 불면증 Galaxy, Insomnia  
2017, Mixed media, 62 × 98 × 151 cm

갤럭시, 공작새 Galaxy, Peacock  
2017, Mixed media, 109 × 217 × 79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35 × 62 × 189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38 × 61 × 190 cm

갤럭시, 최면, not 8Hz Galaxy, Hypnosis, not 8Hz  
2017, Mixed media, 156 × 156 × 166 cm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스크린,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Screen, not 8Hz  
2017, Single-channel video, 13 minutes 8 seconds

갤럭시, 대륙이동설클럽, 스크린, not 8Hz Galaxy, The Continental Drift Club, Screen, not 8Hz  
2017, Single-channel video, 20 minutes 19 seconds

갤럭시, 조인철 Galaxy, Cho In-chul  
2017, Single-channel video, 9 minutes 8 seconds

갤럭시, 최욱노 Galaxy, Choi Wookno  
2017, Single-channel video, 9 minutes 30 seconds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82-2-3015-3248

Copyright © 2017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contribut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When Two Galaxies Merge,  
2017.9.8 – 11.22

퍼포먼스(조인철, 최욱노):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4 – 5시  
(문의 및 예약: 02-3015-3248)

When Two Galaxies Merge,  
September 8 – November 22, 2017

Performance (by Cho In-chul and Choi Wookno):  
Saturday, October 28, 4:00 PM – 5:00 PM  
(RSVP: 02-3015-3248)

